

‘코로나19 여파’ 올해 전국체전·소년체전 개최 안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수 인원 모이는 행사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가 열리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6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전국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아울러 올해 대규모 종합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서는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당초 4월23일부터 26일까지 전북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생활체육대축전과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소년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 차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대회 연기가 결정된 후에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이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점 △해당 대회 참가 대상이 유소년 및 고령자를 다수 포함한 점 △전국 규모의 행사인 만큼 국민 정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은 물론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한 양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방역 지원책 마련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회 개최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전국체육대회 개최 예정인 5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회의를 개최, 이번 전국체육대회 미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됐던 경상북도에서 1년 순연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순연으로 2021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는 제102회 대회로 개최된다.

뉴스 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최 관련 지자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워싱턴·피츠버그, 각각 선수 2명 코로나19 확진

스타들 2020시즌 불참 선언...전체적인 분위기 뒤숭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워싱턴 내셔널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ESPN은 6일(한국시간) “화이트삭스, 워싱턴, 피츠버그 구단에서 각각 2명의 선수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츠버그는 구원투수 블레이크 시

더린드,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화이트삭스는 확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두 명의 선수는 모두 무증상 환자이며 접촉자 추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의 선수들은 홈구장에 소집되기 전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루수 엘레루리스 몬테로도 코로나

19에 감염됐다. 세인트루이스는 앞서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와 헤네시스 카브레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메이저리그는 오는 24일 또는 25일 2020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데이비드 프라이스(LA 다저스), 펠릭스 에르난데스(애틀랜타) 등 스타들도 2020시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뉴스 1

“대한체육회·문체부는 최속현 사건

조사 주체 아닌 ‘조사 대상’이다”

스포츠·시민단체, 국회 소동판에서 기자회견 개최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스포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판에서 고 최속현 선수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력의 카르텔 속에 금기야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그 사람의 죄를 밝혀줘’라는 마지막 말을 던지기까지 최속현 선수가 겪어야 했을 고통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최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기회’가 있었나”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철원3중협회, 경주시청과 경주경찰서까지 어느 곳 하나 최 선수를 보호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된 곳이 없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최속현 선수는 생전 대한철원3중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대목이다.

스포츠·시민단체들은 △철정현 진상조사와 확실한 책임자 처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배제한 진상조사단 출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사퇴 △문체부의 책임지는 자세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체육계 구조 개혁 등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무능하게 이 사태를 방치해 결국은 최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인식의 한계와 체육계 감싸기 등을 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그 주변인,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키시·이정후, 키움 6월 MVP 선정...이승호 수훈선수



‘동광제약 6월 MVP’에 요키시와 이정후가, 수훈 선수에는 이승호가 각각 선정됐다.

키움 히어로즈 요키시와 이정후가 6월 투타 MVP에 선정됐다.

키움은 7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동광제약 6월 MVP 시상식’을 실시했다.

‘동광제약 6월 MVP’로는 우수투수에 요키시, 우수타자에 이정후가 선정됐다. 수훈 선수는 선발 이승호다.

요키시는 6월 한 달 간 5경기에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1.89를 기록했다. 이정후는 같은 기간 25경기에서 97타수 37안타(타율 0.381) 3홈런 16타점을 올렸다. 이승호는 5경기에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1.86으로 활약했다. 우수투수와 우수타자에 선정된 요키시, 이정후는 각각 150만원, 수훈선수에 선정된 이승호는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퓨처스타에서는 5경기에서 1승 1홀드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한 김동혁과 타율 0.409(44타수 18안타) 4홈런 12타점을 쌓아 올린 이명기가 각각 우수 투수와 타자에 선정됐다. 김동혁과 이명기는 각각 50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요미우리 산체스, 부상 없는데 2이닝 3실점 조기교체...왜?

“투쟁심 안 보여...등판 교훈 삼아 나아져야” 채찍질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KBO리그 SK 와이번스 출신의 외국인 투수 양헬 산체스가 아직 코칭스테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산체스는 지난 5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와 경기에서 선발등판, 2이닝 6피안타 1볼넷 3실점을 기록한 뒤 조기교체됐다.

하라 감독은 팀이 0-2로 뒤지던 3회초, 산체스가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맞자마자 선발포수와 함께 교체됐다.

부상 등 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주자를 내보내자마자 강판된 것.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라 감독과 요미우리 코칭스태프는 이날 산체스의 투구에 내내 아쉬움을 나타냈고 결국 전격교체로 이어졌다.

산체스가 지난 2경기 동안 모두 승리를 수확한 상태였기에 더욱 의아한 결정이었

다.

산체스는 개막 전 연습경기에서 크게 부진, 구단에 격정을 안겼으나 정규리그 첫 등판 한신전에서 5.2이닝 1실점, 두 번째 등판 야쿠르트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일찌감치 시즌 2승을 챙겼다.

평균자책점은 0.77. 연습경기와 비교해 내용 면에서 확연히 나아졌다.

다만 2경기 모두 볼넷을 4개씩 허용하는 등 제구에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6일 일본 언론 스포츠초치에 따르면 요미우리 미야모토 가즈모토 투수코치는 “(산체스에게) 투쟁심이 보이지 않았다. 나쁜 흐름으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바꿔줘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산체스에게 2선발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날 등판을 교훈 삼아 더 나아져야 한다”고 채찍질했다.

볼넷이 많고 약점을 거듭 노출하는 모습



이 나오자 일종의 충격요법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1

KIA 김선빈, 대퇴이두근 염좌 진단

부상을 입은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선빈이 최소 3주 이상 재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IA 관계자는 6일 “김선빈이 MRI 검진 결과 왼쪽 대퇴이두근(햄스트링) 염좌 진단을 받았다. 2~3주 후 상태를 보고 재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상 부위는 지난 6월 부상과 같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빈은 지난 5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원정경기, 1루를 밟는 과정에서 NC 1루수 강진성과 충돌해 넘어졌다.

이후 허벅지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김선빈은 이날 병원검진에서 대퇴이두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9일 KT와 경기 중 입은 부상 부위와 똑같다. 당시 김선빈은 2주 가량 지난 뒤인 6월23일 1군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KIA는 또 다른 햄스트링 부상자 류지혁에 대해서는 “MRI 검진 결과 왼쪽 대퇴이두근 회복 중이라는 소견을 얻었다. 2~3주 정도는 재활 및 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상태를 보고 재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지혁은 지난달 14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 9회초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내야안타를 치고 나간 뒤 유민상의 안타 때 2루 베이스를 돌다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검진을 통해 대퇴이두근 파열 진단을 받아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